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21
2016.0910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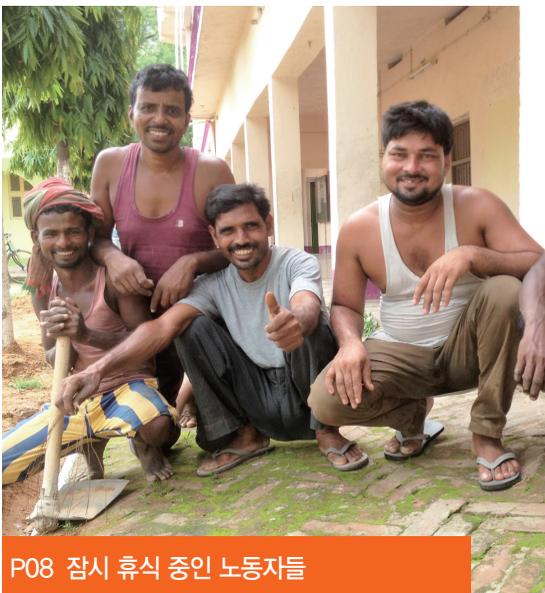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생들이 새 교복을 받았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 모여 노란 셔츠에 녹색 원피스를 입어보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02 바갈랑릿 학교 보수 주민회의



P08 잠시 휴식 중인 노동자들



P12 JTS안산다문화센터의 1주년 기념 영상 시청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2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바갈랑잇 학교 보수 이야기 - 김진아

- 08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마을 개발 활동가 아룬 씨를 추모하며 - 정동표



국내소식

- 12 **함께 나누는 사랑**
JTS안산다문화센터 개원 1주년 기념식 - 김경태



활동터소식

- 16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22 **후원인의 소리**

- 23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6. 9. 19 퍼넬이 범윤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박종화, 김희선, 권지연, 김영숙,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김영순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보수 공사 후 학교 전경



바갈랑잇 학교 보수 이야기

- 학교에 새 옷 입히기 프로젝트

바갈랑잇(Bagalangit)은 필리핀 JTS센터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마놀로포르티치(Manolo Fortich)군에 있는 마을로, 끝없이 이어지는 파인애플 농장을 지나 비포장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나온다. 2006년 JTS와 필리핀 교육부 지원으로 지어진 교실 4칸짜리 학교에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111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JTS - 김진아 활동가

답사 차 처음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지붕 물받이는 떨어져 있고, 벽은 이곳저곳 부서져 있었다. 부서진 벽에는 대나무와 양철판이 열기설기 덧대어져 있었다. 주민들 스스로 학교를 수리하는 곳은 거의 없었던 터라, 바갈랑잇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졌다.



학교 건물의 부서진 물받이

학교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 수리가 시급해 보였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보기 시작하니 고쳐야 할 곳이 정말 많았다. 창문도, 문손잡이도, 교실 내부도 성한 곳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중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교실 천장이었다. 필리핀의 학교는 대부분 양철 지붕을 얹었는데, 비가 내리면 양철 지붕은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난다. 필리핀의 우기에는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지붕에서 나는 빗 소리가 정말 크다. 우리 일행이 바갈랑잇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도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렸다. 교실에 천장이 없으니 교실 내부에서 비가 양철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다. 바로 옆에서 말을 해도 입 모양만 보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소리로 말해야 간신히 들릴 정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하니, 바갈랑잇 학교 보수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답사를 거듭할수록 강해졌다.

학교 보수공사에는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마을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바갈랑잇 마을 리더와학교운영기구(PTCA)의 장, 선생님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교 보수공사에 대한 전체 회의를 했다. 참석한 모두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교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고, 적극적으로 학교보수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 그렇게 회의를 거쳐, 학교 외벽과 부서진 창문과 문, 계단을 보수하고, 교실 내부에 천장과 내벽, 칸막이를 추가로 설치해 더욱 튼튼한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JTS는 건축 자재를 지원하기로 하고, 공정별로 누구를 책임자로 하고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7월에 방문하는 대학생 정토회 선재수련 봉사자들도 공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학교 보수 작업과 봉사팀 운영에 대한 JTS와 선생님, 주민들의 회의

주민들과는 원만하게 합의되었지만,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수 공사에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한 푸드 포 워크(food for work) 사업이었다. 무보수 자원봉사로 공사에 참가하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넉넉지 않으므로 하루 일당 만큼을 쌀로 지급하는 사업 방식인데, 이 부분은 군청과 주민들이 협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필리핀은 올해 7월 1일부터 대통령과 시장 등 중요 부처의 장들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준비하던 6월에는 군청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이 학교보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푸드 포 워크” 지급을 요청하는 결의서를 군청에 제출했지만, 시장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대응 속도가 더디었다. 선재수련 봉사자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자재도 준비가 다 되었는데, 푸드 포 워크에 관련된 최종 승인이 쉽게 나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마음을 많이 졸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덕분이었다.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목재가 필요한데, 마을의 전 리더이자 목수인 다리오 씨가 책임지고 준비하기로 했고, 약속한 기한에 목재를 정확하게 준비해주었다. 보통 이곳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갈랑잇 사람들은 흔쾌히 일을 맡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정말 잘 지켜주었다.

바갈랑잇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나도 덩달아 힘이 났다. JTS 센터에서 2시간 30분 걸리는 도시까지 가서 자재를 사고, 마을이 너무 멀어 배달이 안 된다 하여 덜컥거리는 JTS 트럭으로 마을까지 비를 맞으며 자재를 날라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치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힘들기보다는 즐겁고 기뻐다.

모든 자재가 준비되고, 푸드 포 워크도 승인이 났다. 본격적으로 학교 보수 공사가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학교 보수의 총 책임자인 목수 다리오 씨를 포함하여 총 5명의 마을 목수들이 매일 열심히 일했다.

천장과 내벽을 붙이기 위한 뼈대를 세우고, 7월 13일부터는 대학생 정토회 선재수련 봉사자들이 합류하여 공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봉사자들이 마을에 머물며 보수 공사에 참가하는 동안 나도 함께 마을에 머물렀다. 목수들과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힘을 합쳐 천장과 내벽을 붙이고 페인트를 칠하고 창문, 계단, 지붕을 보수했다.



현장을 점검중인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님

특히 천장을 붙이는 공정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원래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천장을 붙일 때 나무로 만든 뼈대에 맞춰 못질을 똑바로 해서 잘 붙여야 했는데, 망치질을 제대로 해 본 사람이 거의 없던 봉사자들이 천장을 붙이려니 난관의 연속이었다. 크기에 맞게 합판을 자르고, 나무로 만든 받침대에 올라가 고개를 젓히고 못을 박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목수들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더더욱 답답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천장 전체를 다 붙이고 나서는 다 같이 환호성을 질렀다.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러 오신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님의 '천장이 약간 내려앉아 보인다'는 말씀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막막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리오 씨와 함께 긴 막대기를 들고 천장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을 확인하면서 못이 덜 박힌 곳이 있으면 다시 못을 박았다. 그렇게 3~4일에 걸친 천장 재보수 작업 끝에 천장이 다시 올라가 붙은 것을 보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이 일 이후로 각 공정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게 됐다.

한 번은 목수들이 페인트를 시너와 섞는데, 시너를 너무 많이 넣어서 페인트를 칠해도 벽에 나무색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몸짓으로 이야기하려 해도 해맑게 웃으며 페인트를 칠하는 아저씨들. 서로 말이 안 통해도 답답하거나 짜증나기보다는, 웃으며 몸짓으로 이야기했던 일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페인트 문제는 나중에 필리핀JTS 코디네이터인 미오 아저씨가 통역을 해주시고 나서야 해결됐다.



천장에 페인트칠 중인 봉사자들

바갈랑잇에서 열흘 남짓 머무르며 학교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느낀 것은 '함께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를 보수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를 살피며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힘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가 목수들과 말이 안 통해 애를 먹고 있을 때는 슈퍼맨처럼 갑자기 나타나 통역을 해주기도 했다. 아이들도 늘 우리 곁을 맴돌며 관심을 보였는데, 빗자루를 가지고 와 공사 현장의 먼지를 쓸기도 하고, 떨어진 못을 주워 가져다주기도 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끼리만 했으면 오래 걸릴 일이었는데, 다들 기쁘게 함께했기에 금방 끝낼 수 있었다.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학교를 고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했다.

선재수련 봉사자들이 열흘 남짓 머무르는 동안 학교는 정말 눈에 띄게 바뀌었다. 녹슬었던 지붕에는 새로 페인트를 칠했고, 교실도 내벽과 천장을 설치해서 보다 정돈된 모습이 되었다. 이제는 천장 덕분에 비가 쏟아져도 교실 안에서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겠다 싶어 기분이 무척 좋았다. 몰라보게 바뀐 교실에 선생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마음도 많이 들었다.

학교 내부 수리가 마무리 되고 선재수련 봉사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무렵, 구하느라 애먹었던 학교 외벽 자재가 드디어 준비되었다. 선재수련 팀이 떠난 후 최종 점검을 하러 학교를 방문했는데, 아직 작업이 덜 끝났음에도 수업을 하고 있었다. 적은 양의 푸드 포 워크로 일하던 목수들이 더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수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JTS가 3일 동안 푸드 포 워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리오 씨를 비롯한 목수 5명이 외벽과 미늘살 창을 설치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선재수련 봉사자들이 함께 진행한 바갈랑잇 학교 보수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열심히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 세심하게 살피준 선생님, 수줍어하며 허드렛일을 함께 해준 아이들. 모두 모두 잊지 못할 것 같다.

잠시 휴식 중인 노동자들



마을 개발 활동가 아룬 씨를 추모하며

수자타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기술학교를 나와 마을 개발팀 활동가가 된 아룬 씨. 그는 불가촉천민이 대부분인 동게스와리에서 다양한 고충을 함께 개선하면서 마을을 위해 일해왔다. 항상 같이했던 그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추모식을 열고, 뭐라 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다. 수자타아카데미와 마을 곳곳에서 여전히 그의 손길이 느껴진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JTS - 정동표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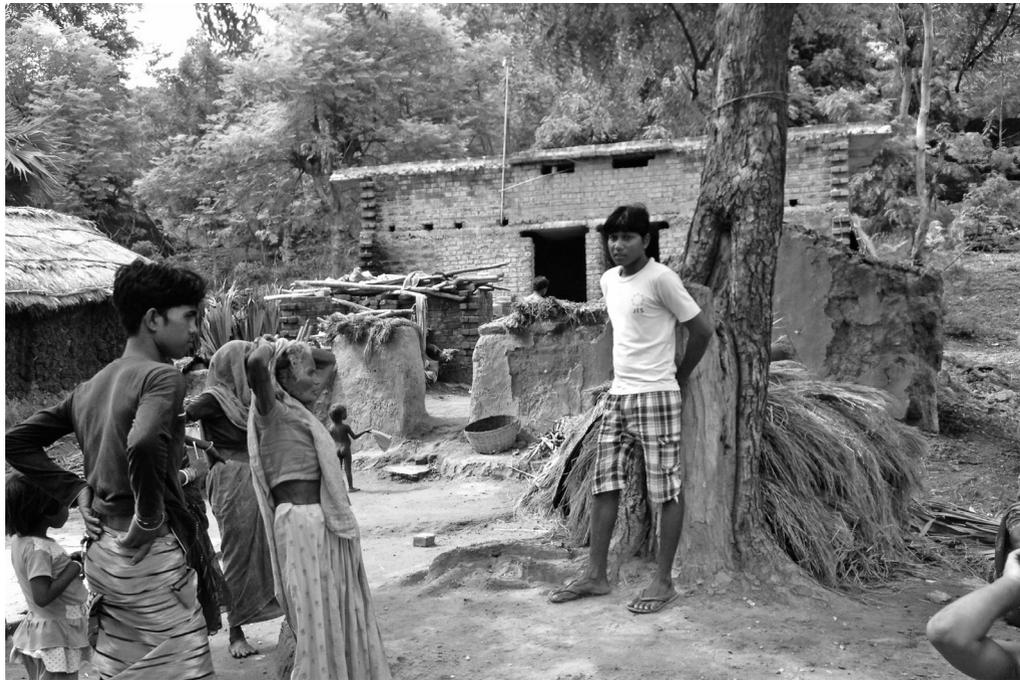
“이 곳에서 유일하게 인구 조사를 하는 곳이 수자타아카데미다. 인구조사를 하며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 개발팀에서 일한 지 1년하고 1개월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도의 더위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고비를 겪고 나니, 생활하는 데 그리 불편하지는 않다. 처음 마을 개발팀에 배치되었을 때 전체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했었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불가촉천민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층으로, ‘달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이들은 상위 카스트에 달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다녀야 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같은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갖가지 차별도 받았다. 수자타아카데미가 있는 이곳 동게스와리는 바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인도 정부는 인구조사에 별 관심이 없지만,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나고, 죽기도 많이 죽는다. 이 곳에서 유일하게 인구 조사를 하는 곳이 수자타아카데미다. 인구조사를 하며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 교실에 모여앉은 불가촉천민 아이들

“고인이 된 아룬 씨는 마을 개발 팀장 비바완 씨와 함께 마을을 돌면서 극빈자 가구를 조사해왔다.”



수자타아카데미 스태프 아룬 씨

8월 초, 마을 개발팀에서 일하던 자원 활동가 아룬 씨가 가벼운 감기를 앓았다.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서 부다가야의 큰 병원을 다녔지만,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다. 아룬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날도 이곳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아룬 씨의 집으로 향했다. 1년을 넘게 함께 생활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니,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병문안을 했던 며칠 전과 같이, 장난스레 덤다면서 담요를 걷고 다시 일어날 것만 같았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날은 임시휴교를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인도의 국경일인 8월 15일 독립기념일 행사와 함께 아룬 씨 추모제를 학교에서 지냈다. 학교 전체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의 삶을 추모했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젊디 젊은 27살 청춘의 죽음. 남겨진 젊은 부인과 아직 어린 두 아이가 가슴 저미게 안타까웠다.

올해는 인도인들이 팀장(사업 책임자)이 되어서 활동하게 된 뜻깊은 해이다. 고인이 된 아룬 씨는 마을 개발 팀장 비바완 씨와 함께 마을을 돌면서 극빈자 가구를 조사해왔다. 지붕을 고칠 벗단 지원사업과 극빈자 지원 물품을 챙기면서 의욕을 가지고 이것저것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벗단 지원을 하는 중에 한 주민이 다가와 자기들한테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아룬 씨는 그들과 잠시 대화를 하며 조사하고는 안 된다고 했다. 내 눈에는 모두 가난해 보여 차이점이 잘 안 보이는데, 아룬 씨는 지원 원칙에 맞추어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환경을 잘 아는 아룬 씨는, 활동가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협의하고 논의해 가면서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했었다.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던 그의 당당한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일면으로 장난을 걸면 쑥스러워하던 모습도 새삼 떠오른다. 그는 우리들 속에 늘 살아 있으리라.



JTS안산다문화센터 개원 1주년 기념식

안산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이 JTS안산다문화센터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국어 교실 학생들은 무대에 나가 한국어로 능숙하게 혹은 서툴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JTS안산다문화센터 - 김경태 활동가

8월 21일 일요일에 JTS안산다문화센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18일, JTS안산다문화센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안산 단원구에 문을 연 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센터의 한국어교실 학생과 선생님, 인근 지역 JTS 봉사자, 새터민, 그리고 다문화센터 봉사자들의 친구와 가족 등 약 70여 명과, 안산에 있는 태국과 스리랑카 사원의 스님들이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나비장터'가 잡혀있어 두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나비장터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한국어 교실 학생들이 손수 준비한 점심을 먹고 다문화 거리로 나가 장을 열었고, 행사를 마치고는 개원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한국어 교실 학생이기도 한 태국 사원의 윗 스님의 뽀짜실라(동남아의 불교예식)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뽀짜실라를 보며 참가자들이 함께 따라했고,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뽀짜실라를 마치고 윗스님은 JTS안산다문화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매우 큰 행운이고 영광이라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새터민 출신 오진하 감독님의 축사가 이어졌고, 한국JTS 최경순 팀장님의 감사 인사를 끝으로 식전 행사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JTS안산다문화센터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습니다. JTS안산다문화센터는 안산 지역의 다문화인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상담, 한국어 교실 운영 등 불과 1년만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JTS안산다문화센터의 다음 1년도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1년을 돌아보는 영상 시청



스리랑카 국가를 부르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

영상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스리랑카 학생들이 무대에 나와 한국어 자기소개와 함께 스리랑카 국가를 합창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한 노래는 서툴렀지만, 국적을 초월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었던 다문화센터의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기념식 준비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던 광명지역 봉사자들이 준비한 화려한 태극권 춤사위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축하공연의 마지막은 '다문화센터의 슈퍼스타'로 불리는 와나차편님의 태국 전통무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와나차편님의 춤사위에서, 고국의 전통을 열과 성을 다해 보여주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손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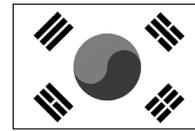
행사의 마지막은 참석자들이 언어를 초월하여 마음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색과 그림을 이용해서 마음을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념식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마하매우나워 스리랑카 선원의 큰 스님께서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마하매우나워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JTS안산다문화센터를 위해 하시겠다는 축사에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JTS안산다문화센터가 더 많이 활약하기를 함께 기원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 학교에 물품 지원

8월10일, 중국 연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피해대책협의회에 의류 및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8월 14일에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마을인 우정마을의 '로지나 서당'을 방문하여 학용품과 목도리, 전통탈과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로지나 서당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알려줄 수 있는 민속놀이 물품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로지나'는 러시아어로 '고향'을 뜻한다고 합니다.



2. JTS안산다문화센터 1주년 기념식

8월 21일에는 JTS안산다문화센터의 개원 1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어교실 학생과 선생님, 인근 지역 봉사자, 새터민 등 70여 명이 모여 안산다문화센터의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을 정리한 영상 상영과 더불어, 한국어 교실 학생들의 한국어 자기소개와 전통 공연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네팔 지진피해 재건사업 모니터링

JTS는 네팔 자낙푸르 구 라멘잡 지구의 해발 2,700미터 산간지방에 지진피해로 무너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7 부터 28일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2곳의 학교 건물은 거의 완공되었고, 운동장도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운동장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화단을 만들어 꽃도 심고 나면 바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완성됩니다. 오는 10월 둘째 주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4. 북·중 국경지대 홍수 피해지역 답사

9월 초까지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의 두만강 유역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홍수로 함경북도 지역에 극심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JTS는 홍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지역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5. 김이슬, 김한샘 님 후원금 전달

남매인 김이슬, 김한샘 님이 JTS를 방문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최근 암 투병 중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평소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자 하셨다며, 그 뜻을 받들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데 사용해달라고 후원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1. 즐겁고 신나는 수자타 유치원 놀이교실

수자타아카데미는 유치원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놀이교실'을 시작했습니다. 14개 유치원의 아이들은 축구, 줄넘기, 줄다리기, 수건 돌리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배려, 협동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놀이교실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출석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유치원과 분교 교사들의 첫 번째 워크숍

산 너머 마을 유치원과 분교에서 활동하는 16명의 교사들이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로 첫 번째 교사 워크숍을 다녀 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교사들간의 친목과 교사로서의 자세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라즈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유적지와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과 다음 날 아침에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 발표와 비디오 교육으로 진행된 교육에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3. 인도 산림국과 함께한 식목 행사

8월 18일, 수자타아카데미는 인도 산림국과 함께 나무의 장수를 기원하고,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감사를 표하는 식목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직접 벤 나무를 연료로 불을 때어 밥을 짓는 이곳에서, 나무를 베지 말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이번 행사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4. 망고나무 묘목 분양

인도 산림국과 함께한 식목 행사 후, 산림국에서 수자타아카데미에 망고나무 묘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받은 묘목은 수자타아카데미의 학생과 노동자, 모든 활동가들에게 한 그루씩 나누어주었습니다. 건기가 긴 인도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오늘 받은 망고나무를 잘 키운 사람에겐 나무 한 그루를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5. 우기철 위협받는 주민들의 건강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리며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축축해졌습니다. 낮엔 덥고 습하며, 새벽엔 서늘해서 감기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위생이 좋지 않은 환경이라 땀띠와 종기 등 피부 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열감기로 수액을 맞는 환자들이 늘어 병원 침대는 모자라고, 상처 소독과 약 조제로 병원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지바카 병원은 감기와 염증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임산부 지원과 예방접종

지바카 병원에서는 임산부 지원과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모집한 임산부들에게 4회에 걸쳐 비타민과 영양식,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바로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 제때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는 기본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7. 극빈자 벧단 지원

7월, 마을 극빈자 가구를 대상으로 벧단을 지원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흙집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정부의 지원으로 벽돌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짚으로 지붕을 올린 흙집이 많습니다. 흙집의 초가지붕은 1~2년에 한 차례씩 손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데군데 물이 샐니다. 미처 수리를 못하면 비닐을 씌워놓고 한 철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을개발팀은 매년 우기가 되면, 마을의 극빈자 가정을 조사하여 지붕이 삭거나 물이 새는 집을 대상으로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벧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 수자타아카데미 학교 내 배관공사

수자타아카데미의 학교 급수 탱크에 물이 점점 부족해져서, 급수 탱크를 새로운 펌프와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학교의 수원으로 두 곳의 지하수를 사용해 왔는데, 한 곳이 말라서 더이상 물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하수 펌프를 설치해 기존 관로에 연결해 사용하려면, 기존 관이 작아서 급수 탱크까지 물이 제대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팀장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관로를 새로 연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펌프를 돌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급수 탱크가 가득한 것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9. 유치원 보수 공사

7월 25일부터 각 마을의 유치원 보수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치원들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부서로는 제때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기술자 2명과 노동자 3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어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 팀이 담당하는 만큼, 페인트 칠만 다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본격적인 공사를 통해 시설의 수명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할 아이들의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마긴다나오 픽켈레간지역 무슬림 초등학교 기공식

1년 정도 논의와 답사를 거쳐, 드디어 8월 16일 픽켈레간 지역에 초등학교 기공식을 했습니다.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에서 학교 부지를, JTS가 자재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역 교육청이 교사를 파견하는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유치원 부터 4학년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4칸 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야자수 농장 사이로 들어설 생각을 하면 정말 신난다고 합니다. 학교가 들어서면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니던 약 100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첫 삽을 뜬 무슬림 초등학교는 11월 중순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2.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수밀라오군 특수학교 건축

수밀라오 군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사는 현재 지붕 공사를 마무리했고, 건물 내부 천장 설치와 수도관 설치, 벽 페인트 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수밀라오 군청에서도 자재 운반에 필요한 트럭을 제공하고, 매주 군청 엔지니어가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는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범농장 옥수수 수확

5월 보름에 시범농장에 심었던 옥수수를 8월 31일에 수확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서는 1년에 3번 파종을 하고 수확할 수 있는데, 꼭 보름 전후에 심어야 싹이 잘 트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누렇게 대가 마를 때까지 밭에 세워두었다가 거의 딱딱하게 마른 다음에 수확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말릴 건조장이 없어서 나온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따고 옥수수대는 중간을 꺾어 놓았다가, 마르면 밭 여기저기에 모은 후 태워서 거름으로 씁니다. 다음 파종에는 송코 다투의 조연대로 원주민 전통 방식대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4. 따골람봉 교육관 보수

따골람봉 교육관은 송코 원주민들이 부키드논 주 7개 부족 원주민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곳이자, 딸란딕 부족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층 건물의 벽 전체를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었고, 기둥도 나무이다 보니 들이치는 빗물과 '아나이'라고 부르는 흰개미 때문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2층 바닥도 나무로 틀을 짜고 대나무를 엮어 바닥을 만들었는데, 역시 흰개미의 피해를 입어 여기저기 꺼지거나 부서질 위험이 많았습니다. 이에 JTS는 딸란딕 부족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뿐 아니라, 부키드논 전체 원주민들의 교육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육관을 보수했습니다. 란타판 군에 있는 1,000명의 딸란딕 부족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원주민이 모여 자신들의 뿌리를 이어가는 곳으로 사용될 길 바랍니다.



5. 2016년 학교 지원 사업 시작

2016~2017년 학교 지원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올 2월에 완공해서 3월에 준공식을 한 부키드논 주 마놀로폴티치 군의 키한아이, 콘솔라시온 예비학교와 두 학교의 모교인 길랑길랑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콘솔라시온과 키한아이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인데, 마을이 생기고 학교가 처음 생겨서인지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방문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셨고, 교복과 학용품 받은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세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30개 학교에 학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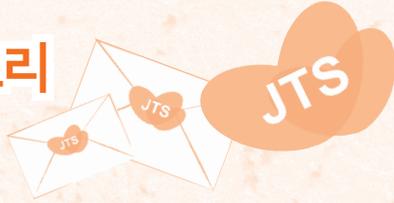
6. 중장비 보관소

JTS 센터에서는 중장비(굴삭기, 불도저, 트랙터, 경운기, 덤프트럭)를 임시 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한데다 비바람에 중장비가 노출되기 쉽고, 자재 보관과 작업을 위한 장소를 확보해야 해서 새 차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굴삭기로 땅을 밀고 불도저로 땅을 다지고, 자갈을 사서 바닥을 보강했습니다. 지금은 인부들이 차고를 위한 철재 자재를 다듬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앵글 바로 지붕 트러스를 만들고, 비에도 썩지 않는 아연도금 파이프로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보광, 뿌리양가, 정동표, 김윤미, 박세환, 백은하
필리핀	안병주, 송치현, 조혜림

후원인의 소리



"Hi~ 스마일 보이! 고통없고 시련없는 그 높은 곳에서 훨훨 나는 네가 상상이 되.
우리 상훈이는 엄마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동안 엄마의 아들로 있어줘서 감사하고, 영원히, 사랑해..."
- 상훈이 엄마 -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 김재옥 -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유선미 -

드림서클 모임 후, 남은 돈을 기부합니다. 좋은 일로 쓰여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향림 -

자녀 생일 축원 기도비로 후원합니다.
- 윤경옥 -

아들 강경원의 생일을 축하하며..엄마 임명희
- 임명희 -

이동열 영가님의 첫생신(음 5.14)을 맞이하여 지구 곳곳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동열 영가님과 모든 영가님들이 기뻐하시길!!!
- 남경현 -

작은 하나하나의 힘이 모아 전체가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 이지연 -

손자 서유훈의 생일을 축하하며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할머니가...
- 이영자 -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많이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자랄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자신들보다 약하고 힘든사람들을 한번씩 생각해 볼수 있도록 기부합니다.
- 박영준 -

백중날을 맞아 이 세계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박미영 -

저희 아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 성채현 -

쓰레기 줍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세지가 되길 바랍니다.
- 이미선 -

남동생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조그마한 후원으로~~~~
- 이지연 -



특별후원금 (2016. 7. 01. ~ 2016. 8. 31.)

2016년 7월	인	도	임명희	10,000	JTS 전체사업	기정임	30,000	김선희	100,000		
북	한		한동규	3,000		김경숙	30,000	김소영	5,000		
		fedn		50,000	081-윤상필	15000	김경숙	30,000	김수영	10,000	
최재현	10,000	강경림	10,000	필	리	핀	DONNASWANK	김경숙0680	김수윤	10,000	
최정원	19,850	강미선	10,000				20,000	100,000	김연국	130,000	
추애자	200,000	강민준	30,000	강경림	3,130	jts국제구호	10,000	김경아	100,000	김연옥	30,000
추진숙	500,000	강윤희	100,000	강미선	10,000	감사합니다	30,000	김경주	30,000	김영숙	20,000
탁경자	200,000	김경란	50,000	강민준	30,000	강미선	3,240	김경하	100,000	김운하	20000
한경심	500,000	김래경	70,000	고성동물병원		강민준	20,000	김경희98914		김유진	10,000
한동규	10,000	김성희	30,000		500,000	강희석	59,550		5,000	김은숙	100,000
한성섭	300,000	김소영	5,000	김소영	5,000	건강약국	300,000	김남옥	100,000	김은숙8412	
한정임	100,000	김향림	63,000	김현정	10,000	고손복영	10,000	김대광	20,000		100,000
한중호	20,000	김현정	10,000	나경원	100,000	고손성민	10,000	김동재(정유정)		김은주	65,000
한중성	72,700	나희원	100,000	명한석	50,000	고연지	600,000		300,000	김인영	100,000
허향미	115,900	노경숙	20,000	신재영	30,000	고이금용	10,000	김말숙	20,000	김인영	100,000
현동엽	70,000	명한석	50,000	신종섭	10,000	고이성조	10,000	김미경	30,000	김종한	29,960
현운용	70,000	신재영	30,000	웹브랜드	50,000	고정종석	10,000	김미경	200,000	김주월	30,000
황상모	100,000	신종섭	10,000	유소영	10,000	권경영	30,000	김미숙	27,000	김지숙	100,000
황소영	50,000	유정훈	30,000	유정훈	30,000	권영세	50,000	김미영	200,000	김지식	100,000
황영애	10,000	윤정은	100,000	이남구	10,000	권오현	1,000,000	김미옥	5,000	김지혜	100,000
황윤주(이말분)		이남구	10,000	이진일	20,000	권은하	100,000	김민아	75,114	김지훈	10,000
	100,000	이다근	10,000	임명희	10,000	금삼승민승필		김민호	20,000	김창익	300,000
무주상	730,000	이진일	20,000	필리핀	4,000		31,000	김봉생	10,000	김춘배	500,000
		인도	4,000			기념	30,000	김상곤	35,590	김현정	10,000

김형국	50,000	박현진	100,000	안영민	30,000	이수현	72,010	전체사업	1,000	최모흔	600,000
김희연	10,000	박화자	10,000	안춘식	300,000	이숙	20,000	정경아	30,000	최미애	31,250
남경현	300,000	박희달	50,000	양소연	50,000	이순덕	부천돼지	정덕	100,000	최유리	220,000
내서법당권선		반미정	30,000	양순화	40,310		32,700	정수민	23,680	최은정	44,420
	370,000	배병문	20,000	양정인	500,000	이영선	1,000,000	정우진-장유정		최재열	100,000
노하진	10,000	백승완	200,000	양진영0622		이요한	20,000		300,000	최재영	도봉
류수진	30,000	백현호	21,970		10,000	이용욱3564		정우철-정유정		1,500,000	
마포채수연	20,700	베두호텔허브점		여수연	1,000,000		50,000		300,000	최재현	10,000
무보상보시	100,000		50,000	오경희	당진	31,080		정이산	100,000	최정원	19,850
문예랑	100,000	변동해	10,000	오윤경	10,000	이원형	10,000	정인규	30,000	추애자	200,000
박경자2809		북한	4,000	오징욱	30,000	이윤숙	1,000,000	정정순5064		추진숙	500,000
	1,000,000	서경석	100,000	오태웅	10,000	이정여	5,000		150,000	탁경자	200,000
박계만	10,000	서말선	10,000	원철웅	40,000	이준규	500,000	정현욱	30,000	한경심	500,000
박근택	100,000	성북기불주	28,000	유경호	30,000	이지연	50,000	제환욱	300,000	한동규	10,000
박미래	50,000	성재현	50,000	유재현	안산	23390		조남은	20,000	한성섭	300,000
박상철	100,000	센터금요강좌34,000		윤경미	30,000	이창현	100,000	조병모	70,000	한정임	100,000
박세진	100,000	소진호	30,000	윤경옥	30,000	이한수	당진	24,250		한중호	20,000
박소희0982		송금영5064		윤정은	100,000	이현준	양평	21,860		한중성	72,700
	100,000		150,000	윤정현	37,050	이형식	30,000	조진희	20,000	허항미	115,900
박순양	20,000	송중수	100,000	윤지연	10,000	임만혁	500,000	중국에서	30,000	현동엽	70,000
박영기	10,000	송지민	150000	응원합니다	5,000	임명희	10,000	지효서	80,000	현운용	70,000
박영준	100,000	신광섭	영주107,730	이건규	500,000	임양호	50,000	차승엽	200,000	황상모	100,000
박옥경	400,000	신동근	50,000	이광성	100,000	임화정	50,000	차지은	30,000	황소영	50,000
박완임	10,000	신통현	10,000	이귀숙	20,000	장성우	10,000	차춘자	20,000	황영애	10,000
박정섭	230,000	신재영	40,000	이규태	300,000	장숙희	300,000	차화정	50,000	황윤주(이말분)	
박정순	30,000	신종섭	10,000	이단희	31,950	장순석	5,000	최경자	50,000		100,000
박지은	200,000	안병주	10,000	이미향	10,000	장애송	10,000	최경희	31,000	무주상	730,000
박진현	150,000	안산다문화센터		이상현	70,000	장현련	10,000	최근영	1,000,000		
박채원	250,000		1,315,870	이세영	13,730	장혜정	300,000	최동녘	50,000		

2016년 8월

북한

강경림	5,000	이향선	10,000	임승규	10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유선미	50,000
강미선	5,000	임승규	100,000	신재영	10,000	신종섭	10,000	유선미	50,000	이마선	500,000
강희진	10,000	장순석	5,000	신종섭	10,000	유선미	50,000	은평김현수7499		32,500	
고광남	340,000	조명환	100,000	유선미	50,000	이마선	500,000		32,500		22,000
곽미정	100,000	최준영	50,000	이마선	500,000	이영자	100,000	이미선	500,000	구영모	50,000
구영모	50,000	한그루공방(김홍임)		이영자	100,000	이미선	500,000	이진일	20,000	구영모	50,000
권우주	50,000		50,000	이주형	30,000	이진일	20,000	임규연	30,000	국제구호	10,000
김다운	50,000	한성욱	50,000	이진일	20,000	임규연	30,000	조명환	100,000	권경영	30,000
김소영	5,000			임규연	30,000	조명환	100,000			권영세	50,000
김승희	30,000	인도		임재찬	10,000					권우주	94,000
김승희	100,000			조명환	100,000	JTS 전체사업				권은하	50,000
김영경	50,000	강희진	10,000	지상금	31,670	금삼승민승필31,000				김연옥	30,000
나경주	100,000	고광남	330,000	한성욱	50,000	6429	10,000	기정임	30,000	김연희	100,000
박완임	10,000	곽미정	50,000	한양순	100,000	(재)꿈나무가	50,000	김경룡	2,000,000	김영경	50,000
북한돕기예기부		구영모	50,000	한지윤	10,000	(주)인서정공100,000		김경하(헤미리마트)		김영선	200000
	30,000	권우주	50,000			004-황명오	30,000		200,000	김영옥5327	은평
서광명	50,000	김성남	100,000	김성욱	200,000	081-윤상필	10,000	김경희	5,000		28,950
송해림	200,000	김성욱	200,000			081-윤성원	50,000	김도연	3,000,000	김용현	100,000
송호림	100,000	김소영	5,000	강희진	10,000	1518개벗	31,000	김동재(장유정)		김운하	60000
신재영	20,000	김승희	100,000	고광남	330,000	강경림	3,000		1,500,000	김유주	154,100
신종섭	20,000	김승희	30,000	곽미정	50,000	강미선	5,000	김말숙	10,000	김은미	100,000
우선영	11000	김현정	10,000	구영모	50,000	강민경	40,000	김말숙	10,000	김은정	770000
유선미	50,000	나희원	100,000	권우주	50,000	강쌍임	100,000	김명규	30,000	김이슬	
이길림	50,000	류성화	30,000	김소영	5,000	강은경	1,000,000	김명희	5,000		100,000,000
이미라	50,000	박근	30,000	김승희	130,000	강은희	10,000	김미경	30,000	김인영	100,000
이미란	60,000	박미영	1,000,000	김정미	500,000	계수정	23,000	김미숙	10,000	김재욱	1,000,000

김재웅	50,000	류수진	30,000	박태근	35,000,000	신동근	50,000	유정희.김외용		이재란	10,000	정서영	100,000	최인열	18,720
김재춘	100,000	류호석	1,000,000	박현주1887		신동현	10,000		200,000	이정규	54,000	정암	300,000	최정윤	50,000
김정남	100,000	무상회사	800,000		100,000	신보경	20,000	유현주	100,000	이정아	454,000	정일상	100,000	최중환	100,000
김정숙	100,000	문성균	30,000	박현진	100,000	신은주	37,020	유혜련	50,000	이정애	50,350	정철민	30,000	최준영	50,000
김정재	1,220,000	문지숙	100,000	박화자	10,000	신인자	50,000	윤경미	30,000	이정여	5,000	정현옥	30,000	최현주	20,000
김준형	100,000	박경자	5,000,000	박희달	50,000	신재영	10,000	윤경애	30,000	이지연	50,000	정희숙	29,340	통영김현순6780	
김지숙	100,000	박경자	150,000	반미정	30,000	신종섭	10,000	윤경옥	100,000	이진	211,000	조갑순	3,200,000		100,000
김지식	50,000	박계만	10,000	배병문	20,000	신지연	20,000	윤미경	50,000	이진미	300,000	조갑순	5,000,000	특별한날	70,000
김지이	100,000	박관자	10,000	배창구	500,000	안병주	10,000	윤미숙	200,000	이춘강	100,000	조남은	20,000	플러스4인방	3,400
김지훈	10,000	박규흠	20,000	백승완	200,000	JTS안산다문화센터		윤정환	300,000	이호용	12,000	조성욱	200,000	필리핀	4,000
김진음	23,720	박근태	100,000	백영아	45,000		728,300	윤지연	10,000	인도	4,000	조아연	50,000	한승협	600,000
김창익	300,000	박상철	100,000	백재근	50,000	안산버룩시장		윤채현	50,000	임애림	70,000	조영자	20,000	한신규	100,000
김태균	300,000	박상훈	100,000	백혜정	100,000		222,200	은평홍서명3306		임재식	100,000	조영재	200,000	한양순	19,221
김태순	50,000	박속희	67,440	변동해	10,000	안송연	30,000		28,910	임재식	100,000	조재룡	30,000	한중호	20,000
김해이진동14		박순양	20,000	부안김선화	26,130	안영민	100,000	이강우	40,000	임철식	30,000	조정숙	40,130	허환숙	100,000
	117,000	박시향	100,000	부안박영순	25,000	안영민	30,000	이귀숙	20,000	임춘옥	500,000	조해광	300,000	호주후원금	669,243
김현규	1,693,000	박영기	10,000	부천 권명규	23,340	안차애	300,000	이길림	350,000	장경희	20,000	주지영(예금주주선자)		홍순형	300,000
김현정	10,000	박완임	10,000	부천이명수	36,550	안홍석	300,000	이대겸	150,000	장세영	100,000		60,000	홍유인	1,000,000
나무원세음보살		박용희	50,000	부천최현순	13,770	양진영0622		이동현	50,000	장순석	5,000	중국에서	30,000	홍유정	1,000,000
	90,000	박은선	100,000	부천허인숙	14,900		10,000	이미라	30,000	장애송	10,000	지우	10,000	홍재영	100,000
나연우	10,000	박점수	5,000,000	북한	4,000	오윤경	10,000	이미향	10,000	장원숙	10,000	지은정	100,000	홍재호	38,010
나연우	10,000	박정숙	100,000	서광명	50,000	윙희옥	50,000	이범열	10,000	장윤희	20,000	차지은	31,000	홍해라	61,000
나용학	5,000	박정용	500,000	서말선	10,000	원철웅	30,000	이소영	200,000	장현련	10,000	차춘자	20,000	황병수	1,000,000
남미란	100,000	박정자	5,000	서명자	200,000	원현우	50,000	이숙	20,000	전체사업	1,000	채영화	100,000	황소영	20,000
노순양	50,000	박정자	5,000	선한솔루션	100,000	유경호	30,000	이양자	30,000	전해준	1,000,000	최경자	50,000	황영애	10,000
노영아	1,000,000	박정호	155,000	설수정	200,000	유선미	50,000	이연숙	100,000	정경아	30,000	최경희	31,000	황제호	30,000
노유지	100,000	박종천	50,000	송중수	100,000	유선희	40,000	이완규	100,000	정교필	100,000	최동녘	50,000		
노태곤	300,000	박주하	50,000	송준호(8073)		유정자	130,000	이원성	30,000	정도희	1,000,000	최명옥	100,000		
노하진	10,000	박지상	5,000		130,000	유정훈	30,000	이원형	20,000	정미희	15,570	최순이	5,000		

해외JTS 후원금 (2016. 7. 01. ~ 2016. 8. 31.)

미 국 J T S	JAEHWAN	샌프란시스코 정토회	\$100.00
2016년 7월	HWANG \$40.00		\$350.00
	JONGSIK M AHN	송현림	\$20.00
고옥희(Benevity)	\$100.00	신정애	\$50.00
\$162.00	KUNG O HONG	안선영, 강혜성	\$10.00
권해원 \$50.00	\$100.00		\$130.00
김 명 \$50.00	KYUNG J KIM	유승목	\$20.00
김학노 \$50.00	\$10.00	윤사라	\$50.00
노유경 \$50.00	Lauren Carree	윤흥섭	\$100.00
무주상 \$15.00	\$100.00	이동영	\$400.00
박경배 \$120.00		이성숙	\$200.00
박근애 \$20.00	미 국 J T S	이영국	\$95.00
박승용 \$30.00	2016년 8월	이종경	\$300.00
박현수 \$50.00		이주희	\$100.00
버지니아정토포럼회원	고옥희(Benevity)	이주희	\$100.00
\$801.10	\$162.00	이지원	\$50.00
시애틀정토포럼	권희정	이진아	\$140.00
\$474.00	김경민	이한결	\$100.00
유승목 \$20.00	김명	임은숙	\$400.00
이동영 \$400.00	김미숙	전심전	\$20.00
이영국 \$135.00	김부연	정선이	\$30.00
임하정 \$50.00	김성순	정수길/홍희선	
정수길/홍희선	김영식	\$500.00	\$50.00
\$50.00	김학노	\$50.00	정주영 영가 \$50.00
정은희 \$200.00	노유경	\$50.00	크리스 배 \$100.00
정호선 \$100.00	무주상	\$5.00	황규영, 황보영, 김윤진
클럽부스정토회	박경배	\$180.00	\$100.00
\$324.00	박상희	\$180.00	황규현, 황보영, 김윤진
한정희 \$100.00	박승용	\$30.00	\$200.00
홍기윤 \$100.00	변재길	\$50.00	Easter Young Lee



나눔저금통 현황 (2016. 7. 01. ~ 2016. 8.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내인편이나 불편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동	권선	당진
무주상 17,130/김종환 29,590/39,890 김중환 29,960 허항미 115,900	23.73	오경희 31,080 이한수 24,250 정희숙 29,340
강서	금천	대구
김민아 12,660 무명 15,300 무명/39,750 박소영 15,270	33,810 / 72,090	291,610/각산동포인트마트 17,260 범물동나이스마트 15,520 율하동나이스마트2개 29,230
거제	기창	대연
247,160	63,900	296,570/ 147,280
거창	기흥	덕산
52,680	48,020	32,600
경주	김천	덕양
경주법당 30,000	22,180	58,710 / 63,360
관악	김포	도봉
76,770, 113,340	98,010	25,540 손정희 39,680 양길동 24,280 양길동 53,990 이재순 23,550 조경란 47,620 최순순 28,480 홍지수 25,550
관평	김해	동대문
348,520	269,060/80,950	24,080/ 24,180
광명	남산	둔산
85,900/무명 28,230 유미영 32,870 장효숙 19,600 한현분 30140	69,310 이단희 31,950 이세영 13,730 이수현 72,010	강외정 17,580 김락춘 30,140 김용화 26,990 무명10개 282,131 박정옥2개 /40,920 송영주 40,220 송유경/43,010 우삼이 32,190 임란희 28,280 전연희 46,020 최기혜 29,560
광주	남양주	마산
284,350/ 64,160/30	62,840/30,920/이수진36,350	77,400 / 74,740/ 193,380
구로	내서	마포
22,000/117,850박은희6069	214,090	조수경 73,780 채수연 20,700
구미	노원	
100,620 /24,390/22,340	41,580 /109,920/ 36,000/ 245,310/ 86,100	
	달성	
	25,760	

목포
50,450 /157,740

문경
김여원 27,430 김효원 19,210

반여
98,030

부사
159,600

부안
165,830김선화 26,130 박영순 25,000

부천
33,790 /26,940/ 28,560/85,350/이명수 36,550/허인숙14,900/최현순13,770/한선자 20,990/권평규23,340/김한영 20,220 무명 46,410 이순덕 32,700 정재수/22,181 최정원 19,850 한충성 72,700

부평
곽경숙 14,030 김성옥 38,390 김연희 10,360 무명 63,410, 70,450, 18,220 신화순 33,490 심복덕 20,670 주미경 35,550 차영보 21,400

분당
303,630

사하
김사문 36,170 김영미 30,710 김지현 18,540 김현자 19,660 김현자 21,390 무명 2,130 무명 32,550 문병근 22,110 문일혜 9,190 박상국 27,470, 422,440 양현승 26,060 양현승 12,520 유우정 16,460 이유선 16,850 이진우 11,490 이화숙 20,720 조인순 23,560 조재범 16,470 최성옥 22,680 최현숙 30,980 최혜진 16,480 표유경 19,060

상주
상주법당 27,200

서대문
61,970 이은정 14,720

서면
386,570

서천
백현호 21,970 양순화 40,310

서초
999,265/645,325

서현
40,330

성동
42,710 /56,090

성서 80,710

세종
정미희15,570/신은주37,020/홍재호38,010

송도
283,136

송파
207,160/30,000

송현 149580

수원
김영린 27,070 무명2개 28,700 이학준 23,390 최경옥 18,450

수정 20870

안산
117,600/이은하 24,190 정병천 19,990 한행란 13,380 한행란 17,950 다문화 25,090 유재현 8,850 유재현 14,540 태국으로안 23,320

안양
무명 44,040 변인수 34,310 서성영 38,920 이종명 22,320

양덕
93,500

양산
170,580/ 196,390

양천
61,510 /267,140/김선덕 27,800 김순옥 16,030 김희정 8,060 이대균 7,750 정두선 10,000 정명옥 23,440 정미화 12,520

양평
윤정원 37,050 이현준 21,860 최은정 44,420

영주
신광섭 107,730 신광섭 35,880 정성희 33,350

영통
117,120/50,610 /32,550

옥교
고명희 13,000 김옥숙 19,510 무명 7,400 무명 9,150 박영순 16,800 장희운 21,700 한원희 30,910

왜관
30,710

울산
기철민 46,040 김경희 75,170 김예주 23,070 김천호 19,630 무명 10,120 무명 10,000 무명 46,570 박종숙/정말생 31,300 정용한 20,030 정월향 28,650 정희진 28,160 최임자 17,810 최훈심 16,300 탐패밀리마트/27,280 박채원 20,930 속미용실 45,990 심숙희 50,000 심숙희 50,000 양승돈 22,810 울산농협야음지점 47,090 울산숯불갈비 42,560 유은숙 28,010 이영옥 20,110 이임주 22,950 이태령 25,550 이현미 17,430/18,550 탕크카울산상사 47,840 해맑은어린이서점 16,970

원주
원미숙 30,030 원종옥 27,820 원주법당 131,600 이하복 28,900

은평
김현수7499-32,500/홍서명3306-28,910/김영옥 28,950 박숙희 67,440 조정숙 40,130 지상금 31,670 한양순 19,221

음성
123,990

의창
108,990

인천
54,580 /38,140

일산
81,940/ 100,850

전주
244,740

제주
29,820

제천
131,940 /80,870

중로
87,540

중랑
65,920

진주
634,850

진해
10,880/109680

창원
287,670/386250

청주
348,760

태백
강정호 21,560 김하열 19,150

통영
84,650

파주
48,370

하동
54,000 /62,000

함안
24,220/129,270 /48,700

해운대
573,000

화명법당
70,480/136,640 /74,880

화봉법당
182,300,김명순 16,310 박기현 43,600 조성훈 39,380

흥덕
264,520

기타
최인열18,720/김순열15,330/김미숙 27,000 김산하 15,260 김상근 35,590 농협은행재송동 11,330 신암중학교 155,500 정수민 23,680 최미애 31,250 한빛서부기술센터 11,820 한승명실래 19,260 한승명실래 17,96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S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시는 사업(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북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인도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필리핀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JTS 전체 사업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성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 (소식지 수령방법 :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받지 않음)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 (인) (연락처 :)	
본인(단체)는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JTS 후원계좌 안내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야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테두리 부분 전체를 꼼꼼하고 반으로 접어 주세요.

신청서 제출 후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회원정보와 후원회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후원금 출금계좌 CMS 출금이체에 대한 뜻밖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금주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가 후원인 본인이거나, 예금주로 부터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예금주 연락처 :)	후원금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4. 개인정보 수집 및 CMS 출금 동의 후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회원관리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인출, 후원금내역, 후원회원등록번호, 휴대폰이메일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기부금내역, 이후 내달 기부금내역 및 불이행,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명장서 간소화 서비스, 후원금내역, 후원회원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기부금내역, 이후 내달 기부금내역 및 불이행, 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 업무위탁: CMS출금(계, 송)인 및 전자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휴대폰, 이용기간, 동의일, 기부금내역, 이후 내달 기부금내역 (소셜미디어프롬트웨어, 위탁업무, 위탁업무(온라인) 서비스)기부금영수증 발행, 제공정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이메일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후원금 출금 계좌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기부금내역, 이후 내달 기부금내역 및 불이행,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후원금 출금(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간: 국제, 제공받는 업무(장서 간소화)서비스, 제공받는 생년월일, 후원번호, 이용기간, 이후 기부금내역 및 불이행,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명장서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단체)는 상기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